

黃帝內經의 表裏陰陽 관점에서 본 汗에 대한 考察

김규석 · 김운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 교실

A Review on Perspiration in the aspect of BiaoLi-YinYang(表裏陰陽) in Hwangjenaegyung(黃帝內經)

Kyu-Seok Kim · Yoon-bum Kim

In our review, the conclusions on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perspiration are as follows.

1. It is the physiological perspiration that Qingyang(清陽) from Jing(精), Qi(氣), Xie(血) synthesized by digestion of food and drink(水穀), is increased and secreted from pores on the skin(腠理).
2. The main center to control perspiration is heart(心), but liver(肝), stomach(胃), spleen(脾), lung(肺), bladder(膀胱), kidney(腎) and triple energizer(三焦) can be also related to perspiration indirectly.
3. As Weiqi(衛氣) make the body warm and keep the body temperature constant by controlling perspir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a diagnosis of Weiqi(衛氣) Xushi(虛實) by skin temperature.
4. We guess that perspiration can be secreted by the control of BiaoLi-YinYang(表裏陰陽) such as centrifugal(氣) and centrifetal force(形) of Qi(氣).
5. Sweating therapy can make the level of Biaoyang(表陽) correct and control the balance between centrifugal(氣) and centrifetal force(形) of Qi(氣).

Key words : Perspiration, BiaoLi-YinYang(表裏陰陽), Xingqi(形氣), Weiqi(衛氣)

서론

피부과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다 보면 동일한 질환이라도 땀의 多少와 땀이 나는 양상이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증상과 더불어 땀의 생리병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질환 중에 특히 땀은 피부 부속기에 속하는 汗腺에서 나오며, 자율신경계의 조절에 의한 말초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통해 땀은 체온 조절 및 노폐물 배출,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등 피부의 생리병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땀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피부과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교신저자 : 김운범,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교실 (Tel. 02-958-9181, E-mail: kyb6838@hanafos.com)

• 접수 2010/03/07 • 수정 2010/03/28 • 채택 2010/03/30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때문에 《黃帝內經》¹⁻³⁾, 《傷寒論》⁴⁾, 《東醫寶鑑》⁵⁾, 《東醫壽世保元》^{6,7)} 등을 중심으로 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주로 땀의 病因病機를 해당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할 때 이 등⁸⁾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리적인 땀을 설명할 때 《黃帝內經》 〈素問·陰陽別論〉의 ‘陽加于陰謂之汗’ 문구가 주로 인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素問·陰陽別論〉 ‘陽加于陰謂之汗’의 문구가 과연 생리적인 땀을 설명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陰陽別論〉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⁹⁾ ‘結陽, 結陰, 陰陽結, 二陽結, 三陽結, 三陰結, 一陰一陽結, 陰搏陽別, 陰陽虛陽, 陰虛陽搏’과 함께 ‘陽加於陰’의 결과로 인한 ‘汗’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陰陽의 불균형으로 인한 병리 기전을 설명하는 중간에 생리 기전이 나온다는 것은 문맥상 어색하므로 이것 역시 병리적 상황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저자는 〈素問·陰陽別論〉의 ‘陽加于陰謂之汗’가 병리적 상황이라면 과연 어떠한 상태를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黃帝內經》에서 표현된 땀에 대한 다른 篇의 설명을 근거로 땀의 개념과 생성 기전을 정의하고 衛氣와의 관련성을 통해 汗出의 병리적 상황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여 보고

자 한다.

본론 및 고찰

1. 연구 방법

국내 논문 검색 엔진인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orean Medical Database, DBPIA,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Database of RICH, OASIS 등에서 발행 연도 제한 없이 ‘땀’, ‘한출’, ‘Sweat’, ‘Sweating’, ‘Perspiration’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얻은 논문들과 《黃帝內經》에서 ‘汗’, ‘衛氣’와 관련된 篇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 땀의 개념 및 생성 기전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以天地爲之陰陽, 陽之汗, 以天地之雨名之’라 하여 땀을 자연 현상 중 비가 내리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서 天地는 上下의 위치적 陰陽을 의미하며¹⁰⁾, 地氣가 상승하여 이루어진 天氣가 위에서부터 하강하여 비가 되듯이 상부로 상승하여 이루어진 淸陽이 上竅를 통해 腠理에서 드러난 것이 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¹¹⁾. 즉 여기서 ‘陽之汗’의 ‘陽’이란 天地 上下陰陽으로 보나 內外陰陽¹²⁾의 공간적 개념으로

1) 김한성, 홍무창. 黃帝內經에서의 汗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학회지. 1992;7(1):163-72
 2) 이원중, 신조영. 汗證의 時代的 傾向에 대한 文獻的 考察. 한국전통의학지. 2000;10(1):115-128
 3) 이광규, 이상원 외. 汗出의 病因病機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6;10(2):62-75
 4) 정한솔, 이광규 외. 傷寒論에 나타난 汗出에 대한 문헌 고찰.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9;13(2):1-9
 5) 강경화, 최영성 외.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東醫寶鑑을 중심으로. 2003;17(4):852-60
 6) 서웅, 송정모. 發汗에 대한 四象醫學의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56-66
 7) 하우수. 汗을 중심으로 한 體質病症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3;5(1):125-31
 8) 이원중, 신조영. 汗證의 時代的 傾向에 대한 文獻的 考察. 한국전통의학지. 2000;10(1):115-128
 9) 結陽者, 腫四肢. 結陰者, 便血一升, 再結二升, 三結三升. 陰陽結, 多陰少陽曰石水, 少腹腫. 二陽結謂之消, 三陽結謂之隔. 三陰結謂之水. 一陰一陽結謂之喉痺. 陰搏陽別, 謂之有子. 陰陽虛陽澀死. 陽加於陰謂之汗. 陰虛陽搏謂之崩. -素問陰陽別論 中-
 10) 故曰, 天地者, 萬物之上下也. -素問陰陽應象大論 中-
 11) 故淸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 故淸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淸陽發腠理, 濁陰走五臟. 淸陽實四支, 濁陰歸六腑. -素問陰陽應象大論 中-

보거나 表皮에 해당하므로 '陽之汗'이란 表皮에서 보이는 땀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³⁾. 상승된 地氣로부터 비롯되어 天氣가 하강하여 비가 되듯이 땀 역시 淸陽의 기원은 地氣인 穀氣에서 비롯됨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素問-評熱病論> '人之所以汗出者, 皆生於穀, 穀生於精....汗者精氣也'란 표현에서 볼 수 있다. <素問-宣明五氣>에서는 '心爲汗'¹⁴⁾, <靈樞-九鍼論>에서 '五液, 心主汗'¹⁵⁾, <類經>에 '心主血, 汗卽血之餘'란 표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땀이 心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東醫寶鑑>에서는 精, 氣, 神, 血이 모두 水穀에서 비롯됨을 <內經> 등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¹⁶⁾, 이들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땀은 음식에서 精氣血이 만들어 지고 난 후 이로부터 생성됨을

유추할 수 있다. <素問-經脈別論>의 내용¹⁷⁾을 통해서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汗을 주로 조절하는 센터는 心이 되지만 津액의 대사 측면에서 볼 때 肝, 胃, 脾, 肺, 膀胱 및 腎, 三焦까지 간접적으로 汗을 조절하는데 관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 때문에 <經脈別論>에서는 '故飲食飽甚, 汗出於胃. 驚而奪精, 汗出於心. 持重遠行, 汗出於腎. 疾走恐懼, 汗出於肝. 搖體勞苦, 汗出於脾. 故春夏秋冬, 四時陰陽, 生病起於過用, 此爲常也.'라고 하여 센터인 心 뿐만 아니라 胃, 腎, 肝, 脾 등의 경락 상¹⁹⁾에서 사계절의 陰陽法道를 어기고 過度하게 사용하면 이로 인해 땀이 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2) ①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素問陰陽應象大論 中-

② 內合於五臟六腑, 外合於筋骨皮膚, 是故內有陰陽, 外亦有陰陽. 在內者, 五臟爲陰, 六腑爲陽. 在外者, 筋骨爲陰, 皮膚爲陽.-靈樞 壽夭剛柔-

13) 개인적 견해로는 靈樞 壽夭剛柔篇을 참고할 때 內外陰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14) 五臟化液, 心爲汗, 肺爲涕, 肝爲泪, 脾爲涎, 腎爲唾, 是謂五液.-素問宣明五氣 中-

15) 五液, 心主汗, 肝主泣, 肺主涕, 腎主唾, 脾主涎, 此五液所出也.-靈樞九鍼論 中-

16) (1) 補精以味 /보정어미(정액을 보충시키려면 담담한 맛을 가진 오곡을 먹어야 한다) <內經>曰, 精生於穀° 又曰, 精不足者, 補之以味° 然體郁之味, 不能生精, 惟恬憺之味, 乃能補精° 洪範論味而曰, 稼穡作甘° 世間之物, 惟五穀得味之正° 但能淡食, 穀味最能養精° 凡煮粥飯, 而中有厚汁滾作一團者, 此米之精液所聚也° 食之最能生精, 試之有效° <眞詮>

(2) 氣生於穀 /기생어곡(기는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곡식에서 생긴다) <靈樞>曰,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其淸者爲榮, 其濁者爲衛° 榮在脉中, 衛在脉外° 營周不休, 五十度而復大會, 陰陽相貫, 如環無端° 又曰,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 <正理>曰, 日啖飲食之精熟者益氣, 此氣生於穀, 故從氣從米° 人身之中, 全具天地陰陽造化之氣, 得動而用之° 人年二十而氣壯° 節慾小勞, 則氣長而緩, 多慾勞倦, 則氣少而短° 氣少則身弱, 身弱則病生, 病生則命危矣°

(3) 五味生神/오미생신(신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부터 만들어진다) <內經>曰,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修明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津液相成, 神乃自生°

(4) 陰血生於水穀/음혈생어수곡(음혈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부터 만들어 진다) <靈樞>曰, 中焦受氣, 變化而赤, 是胃血° 又曰, 榮出於中焦° 又曰, 穀入於胃, 脉道乃行, 水入於經, 其血乃成° <內經>曰, 榮者, 水穀之精氣也° 和調於五臟, 灑陳於六府, 乃能入於脉也° 故循脉上下, 貫五臟, 絡六府也°

17)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臟,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 飲入於胃, 游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并行, 合於四時五臟陰陽, 揆度以爲常也.-素問-經脈別論 中-

18) 김 등(김한성, 홍무창. 황제내경에서 한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학회지. 1992;7(1):163-170)은 肺는 氣를 收斂하고 心은 氣를 鬱蒸해서 肺는 汗不出에 관여하고, 心은 汗出에 관여하여 肺病에서 汗出이 많은 것은 생리적으로 肺가 腠理를 收斂시켜 不汗出해야하는데 그 기능이 이상이 생겨 명이 되어 肺病에 汗出이 많다고 추론하기도 하였다.

19) 裏部の 臟腑가 表部인 모공과 연결하려면 표의 경락과 연결이 되어야 하므로 <素問-經脈別論>에 나타난 구절의 胃, 心, 肝, 脾, 腎은 臟腑가 아닌 經絡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 衛氣의 汗出 조절을 통한 체온 조절 기전

우리 인체는 자신의 생존 조건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인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부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동물에 속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조절중추로부터 뇌에 들어오는 혈액의 온도를 미리 입력된 기준 온도와 비교해 높거나 낮으면 인터루킨 1 등의 체온조절물질을 분비하고 몸 속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게 되는데 추울 때 몸이 떨리는 것은 근육이 수축하면서 열을 생산하기 위함이고 더울 때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땀으로 열을 배출하게 된다²⁰⁾.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체온의 조절을 衛氣가 한다고 보고 <靈樞本藏篇>에서 ‘衛氣者，所以溫分肉，充皮膚，肥腠理，司關合者也.’라고 하여 체온 즉 分肉의 溫氣는 衛氣의 흐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러한 衛氣는 分肉의 溫氣가 식지 않게 피부를 충분히 잘 감싸고, 피부 표면의 腠理(사기가 들어오고²¹⁾ 땀이 체외로 빠져 나가는 구멍²²⁾를 여닫아 체온을 조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腠理를 開閉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밸브의 역할을 衛氣가 한다고 보고 있다. 체온이 상승하면 衛氣가 땀구멍을 열어젖혀 체외로 땀이 배출되고 증발되어 체온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衛氣의 정상 기전에 대해 <靈樞本藏篇>에서는 ‘衛氣和則分肉解利，皮膚調柔，腠理緻密矣’라고 하여 衛氣가 조화로우면 分肉이 따듯해지며 긴장이 풀리고 기혈이 막히지 않고 원활히 소통되어 피부가 적절히 부드럽게 조절

되고 腠理가 촘촘히 치밀해져서 밖으로 새거나 사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衛氣의 關合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몸이 뜨거운데도 腠理가 꼭 닫혀 땀을 흘리지 못하거나 몸이 싸늘한데 계속해서 주리가 열려 땀을 흘리게 될 때, 인체의 항상성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병태를 나타내며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腠理의 關合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기전을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볼 수 있다²³⁾. 따라서 衛氣의 허실 판단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피부의 체온 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黃帝內經》<官能篇>에서 ‘審皮膚之寒溫滑澀，知其所苦’라고 하여 피부의 滑澀과 더불어 寒溫을 통해 衛氣의 상태를 살펴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4. ‘陽加於陰謂之汗’에서 설명하는 땀의 병리적 기전

<素問陰陽別論>의 ‘陽加於陰謂之汗’에 대한 張志聰의 주석을 보면 ‘汗은 陰液이므로 陽氣의 宣發에 힘입은 然後에야 능히 신체를 充滿케 하고 皮毛를 潤澤하게 할 수 있다’²⁴⁾고 해석을 하였다. 이 역시 생리적 개념으로 땀을 해석한 것으로 ‘陽’을 ‘陽氣’, ‘陰’을 ‘陰液’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땀은 ‘結陽，結陰，陰陽結，二陽結，三陽結，三陰結，一陰一陽結，陰搏陽別，陰陽虛陽搏’과 함께 병리적 상황에서 ‘陽加於陰’의 결과로 인한 ‘汗’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왜냐하면, 음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병리 기전을 설명하는 중간에 생

20) 해리슨 내과학. ‘열, 불명열’ 설명 중

21) ① 每至於風府則腠理開，腠理開則邪氣入 -素問 瘧論 中-

② 衛氣每至於風府，腠理乃發，發則邪氣入 -素問 瘧論 中-

22) 吳則腠理開，榮衛通，汗大泄，故氣泄 -素問 舉痛論 中-

23) 帝曰，法陰陽奈何？岐伯曰，陽勝則身熱，腠理閉，喘粗爲之俯仰，汗不出而熱，齒乾以煩冤，腹滿死，能冬不能夏。陰勝則身寒，汗出，身常清，數栗而寒，寒則厥，厥則腹滿死，能夏不能冬。此陰陽更勝之變，病之形能也。 -素問 陰陽應象大論 中-

24) 張志聰註：汗乃陰液，由陽氣宣發，而後能充身澤毛

리 기전이 나온다는 것은 문맥 상 어색하기 때문이다. 만일 병리적 상황이라면 어떠한 기전에 의해 땀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陽加於陰謂之汗’에서 말하는 陰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王水은 이에 대해 陽이 아래에, 陰이 위에 있어 陽이 陰을 압박하지만 陰이 견고히 유지되며 훈증되어 땀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²⁵⁾ 구체적인 陰陽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楊은 陽氣와 陰津으로 정의하고 陽氣가 陰津을 압박하여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이 땀이라고 하였다²⁶⁾. 일반적으로 《黃帝內經》에서는 陰陽을 크게 內外, 表裏, 腹背, 上下(天地/水火), 形氣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⁷⁾. 이에 대해 권²⁸⁾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陰成形 陽化氣’²⁹⁾가 〈素問·陰陽離合論〉의 氣裏形表³⁰⁾를 거쳐 〈素問·陰陽別論〉의 病證으로 풀리는 것으로 해석하여, 陰陽·表裏와 形과 氣의 상관관계에 대해 ‘氣裏形表論’으로 요약하였다. 여기서 氣는 陽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반발력을 말하며, 形은 陰으로 表部에서 裏部로 향하는 수축력이라고 정의하여, 결국, “陽加於陰”의 의미는 陽氣 즉 반발력이 陰形 즉 수축력보다 더 커진 상태로 이때 인체는 땀을 내보내어 陰과 陽 즉 形과 氣의 調和를 꾀한다는 뜻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陽加於陰謂之汗’의 병리적 상황을 氣裏形

表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陰形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陽氣가 커진 상태와 또 다른 경우는 陰形은 그대로인데 陽氣가 커진 상태이다. 모두 결과적으로는 形과 氣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땀을 통해 形과 氣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 병리적 상황이 종료될 것이다.

이러한 氣裏形表의 개념으로 《傷寒論》의 太陽傷寒에 汗出이 있는 경우³¹⁾를 가정해 보면, 寒邪의 침입으로 形이 氣를 압박해오면 陽氣는 形을 뒤흔들어 다시 形을 본래대로 늘리려는 반응을 惡寒으로 볼 수 있으며, 惡寒 후에도 계속 形의 압박이 계속되면 전체적인 形氣의 균형을 위해 陽氣는 자리를 어느 정도 내주어야 한다. 그만큼이 發熱로 소모되는 것이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투약이 제대로 된다면 陽氣가 다시 늘어나면서 形氣간의 갈등이 재현되는데 늘어난 만큼의 陽氣가 다시 熱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되풀이 하던지 아니면 거꾸로 形을 압박하여 形을 줄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汗出이 되는 것이다. 결국, 形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汗出이며, 반대로 氣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發熱일 것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Fig. 1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發熱후에도 계속해서 形의 압박이 계속되어 모든 陽氣가 發熱로 고갈이 되면, 形氣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이

25) 王水: 陽在下, 陰在上, 陽氣上博, 陰能固之即, 蒸而爲汗

26) 楊維傑: 陽盛於陰, 即陽氣迫使陰津外泄, 故汗出

27) ① 外爲陽, 內爲陰 -素問 金櫃真言論 中- ② 背爲陽, 腹爲陰 -素問 金櫃真言論 中- ③ 臟者爲陰, 腑者爲陽 -素問 金櫃真言論 中- ④ 皆陰陽·表裏·內外·雌雄·相輸應也, 故以應天之陰陽也 -素問 金櫃真言論 中- ⑤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 -素問 陰陽應象大論 中- ⑥ 味厚者爲陰, 氣厚者爲陽 -素問 陰陽應象大論 中- ⑦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 -素問 陰陽應象大論 中- ⑧ 內合於五臟六腑, 外合於筋骨皮膚, 是故內有陰陽, 外亦有陰陽. 在內者, 五臟爲陰, 六腑爲陽. 在外者, 筋骨爲陰, 皮膚爲陽. -靈樞 壽天剛柔 中- ⑨ 所謂陰陽者, 去者爲陰, 至者爲陽. 靜者爲陰, 動者爲陽. 遲者爲陰, 數者爲陽. -素問 陰陽別論 中- ⑩ 足之十二經脈, 以應十二月, 月生於水, 故在下者爲陰. 手之十指, 以應十日, 日生於火, 故在上者爲陽. -靈樞 陰陽繫日月 中- ⑪ 陽化氣, 陰成形 -素問 陰陽應象大論 中-

28) 주광 著. 권건혁 譯. 國譯活人書. 서울. 반룡출판사. p753

29)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故積陽爲天, 積陰爲地. 陰靜陽躁, 陽生陰長, 陽殺陰藏. 陽化氣, 陰成形. -素問 陰陽應象大論 中-

30) 陰陽, 積傳爲一周, 氣裏形表而爲相成也. -素問 陰陽離合論 中-

31)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強痛而惡寒. /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 嘔逆, 脈陰陽俱緊者, 名爲傷寒. / 太陽病,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疼痛, 惡風, 無汗而喘者, 麻黃湯主之.

인해 氣의 탕진을 뒤쫓아 形이 급속도로 와해된다. 이 과정이 亡陽汗出³²⁾로 《靈樞決氣篇》에서 말하는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津脫者, 腠理開, 汗大泄.’이나 四象醫學에서 말하는 少陰人 亡陽證³³⁾과 일맥 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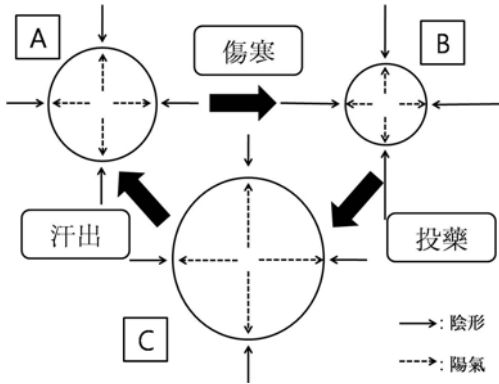


Fig. 1. 氣裏形表로 본 太陽傷寒 汗出 機轉

- A. 形氣調和 狀態
- B. 傷寒後 無汗, 惡寒, 發熱을 나타내며 陰形이 陽氣를 압박하는 상태
- C. 韓藥 投藥 後 陽氣가 늘어나며 汗出이 발생하여 다시 形氣가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

5. 治法 중 汗法

땀을 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辛味를 가진 약물을 이용하는 것이다³⁴⁾. 모든 약물의 氣味에는 體用이 있어 金味인 매운 맛을 가진 약물은 모두 木氣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꼭대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밖으로 發散시키게 되는 것이다. 木氣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寒邪를 쫓아 낼 수 있으며, 흩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닫힌 것을 시원스레 열어준다³⁵⁾.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도 ‘其在皮者, 汗而發之.’라 하여 邪氣가 皮膚에 있을 때 땀을 내는 汗法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活人書》 ‘麻黃湯 桂枝湯 二者, 均爲解散, 正分陰陽, 不可不慎也. 仲景所謂無汗不得服桂枝. 有汗不得服麻黃. 常須識此. 勿令誤也. 今人纔見. 身熱. 頭痛. 便發汗. 不知汗空閉而用麻黃. 汗空疎而用桂枝. 傷寒傷風. 其治不同. 古人有汗者. 當解肌. 無汗者. 可發汗.’ 조문에서 有汗과 無汗이 병증이 다르므로 發汗解表와 發汗解肌를 구분하여 사용하라고 하였다. 《壽世保元》에서는 더 나아가 太少陰陽人의 臟理 虛實을 파악하여 동일한 外感之寒邪가 인체의 表部를 손상시킨 경우라고 할지라도 太少陰陽物의 약물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치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³⁶⁾. 다시 말하면 모두 辛味를 가지고 있더라도 태소음양인의 臟理虛實에 따라 肺大肝小한 太陽人은 五加皮를 주로 사용하여 補肝之表陽해야 하며, 脾大腎小한 少陽人은 羌活 등을 주로 사용하여 補腎之表陽할 것이며, 肝大肺小한 太陰人은 麻黃 등을 주로 補肺之表陽을 해야 하며, 腎大脾小한 少陰人은 桂枝로 補脾之表陽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모두가 각 체질마다 虛하기 쉬운 表陽을 補하여 땀을 흘리게 함으로써 形氣의 균형을 조화롭게 하려는 방법으로

32) 病人脈陰陽俱緊, 反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 法當咽痛而復吐利. / 少陰病, 脈微, 不可發汗, 亡陽故也, 陽已虛, 尺脈弱澁者, 復不可下之. / 傷寒論 辨少陰病脈證并治 中-

33) 亡陽者, 陽不上升, 而反爲下降, 則亡陽也, 亡陰者, 陰不下降, 而反爲上升, 則亡陰也. 陰盛格陽於上, 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 而外通膀胱, 故背表煩熱, 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所謂內水外炭, 陽將亡之兆也. 陽盛格陰於下, 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膂, 而內通膈裡, 故腸胃畏寒, 而泄下也,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所謂內炭外水, 陰將亡之兆也.

34) 辛與氣俱行, 故辛入而與汗俱出-靈樞 五味論 中-

35) 凡藥氣味, 有體有用, 相反而實相成, 故得金之味者, 皆得木之氣. 木氣上達, 所以辛味不主收而主散. 木之氣溫, 能去寒, 木之氣散, 能去閉. 당중해 저. 권건혁 역. 국역본초문답. 도서출판한림. p111

36) 동무유고. 肉桂 辛熱 善通血脈 腹痛虛寒 溫補可得 ○官桂 壯脾而有充足內外之力 / 桂枝 少便 橫行手臂 止汗舒筋 治手足痺 / 麻黃 味辛 解表出汗 身熱頭疼 風寒發表 ○麻黃 解肺之表邪 / 羌活 微溫 祛風除濕 身痛頭疼 舒筋活骨 ○羌活 解腎氣之表邪 而羌活優力 / 五加皮 寒 祛痛風痺 健步堅筋 益精止瀝

해석할 수 있다.

결 론

《黃帝內經》에서 표현된 땀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땀의 개념과 생성 기전을 정의하고 衛氣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생리적 땀은 水穀에서 만들어진 精氣血이 上升하여 이루어진 淸陽이 腠理를 통해 나오는 것이다.
2. 汗을 주로 조절하는 센터는 心이 되지만 津액의 대사 과정에서 볼 때 肝, 胃, 脾, 肺, 膀胱 및 腎, 三焦까지 간접적으로 汗을 조절하는데 관여할 수 있다.
3. 衛氣는 腠理의 關合과 땀의 배출을 조절하여 인체의 체온을 유지하므로 皮膚의 寒溫 진단을 통해 衛氣의 虛實을 파악할 수 있다.
4. 《素問-陰陽別論》의 ‘陽加於陰謂之汗’ 해석에서, 陰陽은 ‘氣裏形表’의 ‘表裏陰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氣와 形의 불균형으로 병리적 땀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체는 表裏陰陽의 조절을 통해 땀이 배출될 수 있다.
5. 汗法은 表陽을 더해 주어 땀을 나게 하여 形과 氣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2. 이원중, 신조영. 汗證의 時代的 傾向에 대한 文獻的 考察. 한국전통의학지. 2000;10(1):115-128.
3. 이광규, 이상원 외. 汗出의 病因病機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6;10(2): 62-75.
4. 정한술, 이광규 외. 傷寒論에 나타난 汗出에 대한 문헌 고찰.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9;13 (2):1-9.
5. 강경화, 최영성 외. 땀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東醫寶鑑을 중심으로. 2003;17(4):852-60.
6. 서웅, 송정모. 發汗에 대한 四象醫學的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56-66.
7. 하우수. 汗을 중심으로 한 體質病症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3;5(1):125-31.
8. 權健赫 編輯. 編輯黃帝內經. 서울. 반룡출판사. 2000:11, 13, 14, 15, 19, 20, 21, 63, 91, 92, 101, 288, 420, 373.
9. 權健赫 編輯. 編輯東醫寶鑑. 서울. 반룡출판사. 2005:21, 28, 41, 56.
10. 대한내과학회편. 해리슨 내과학 (국역 16판). 도서출판MIP. 2006.
11. 朱肱 著. 權健赫 譯. 國譯活人書. 서울. 반룡출판사. 753.
12. 權健赫 編輯. 李濟馬全書. 서울. 반룡출판사. 2002:91, 359.
13. 唐宗海 著. 權健赫 譯. 國譯本草問答. 서울. 반룡출판사. 2002:111.

참 고 문 헌

1. 김한성, 홍무창. 黃帝內經에서의 汗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학회지. 1992;7(1):163-72.